

강북문화재단, 전시 해설 실전 교육 ‘도슨트 전문가 과정’ 운영

✎ 이미숙 기자 | ☎ 승인 2025.06.30 11:05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은 구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활동가 양성을 위한 ‘도슨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오는 7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슨트 전문가 과정’은 8월 25일(월)부터 10월 1일(수)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도슨트의 역할과 미술사의 흐름, 도슨트 시나리오 작성 등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도슨트 강사로 참여해 강북구의 전시문화를 이끌어갈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이며, 전시 해설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공고 및 접수 양식은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북문화재단은 지난해 ‘2024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해 그림책 예술교육, 도슨트 및 하우스어써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유휴공간에 명화작품을 전시하고, 도슨트 전문 교육 수료자를 연계·운영한 ‘우리 학교는 미술관’ 프로그램은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지역문화 우수 사례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미숙 기자 Kus12suk@naver.com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